



“목놓아 부르고 싶던 아버지”... 70여년만에 가족 품으로

어제 4·3희생자 7인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피해자 중 4·3희생자 첫 발견

“얼굴도 모르지만 저를 있게 해준 아버지. 많이 그립고, 보고싶고, 목 놓아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 살아 있을 때 시신으로라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주4·3 당시 형무소 등으로 끌려가 무참히 생을 마감한 희생자 7명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3일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 등 총 7명이다. 대전 골령골에서 3인(김사립·양달호·강두남),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2인(임태훈·송두선), 제주공항에서 2인(송태우·강인경)의 유해가 발굴됐다.

김사립 씨는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1949년 2월 주정공장수용소

에 수감된 뒤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됐으나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학살됐다. 양달호 씨도 1948년 6월 주정공장 수용소에 수감된 뒤 대전형무소로 이감, 마찬가지로 골령골에서 집단 학살 당했다. 강두남 씨는 1949년 7월 대전형무소로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한국전쟁 발발 직후 골령골에서 희생당했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1950년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 수천명이 대한민국 군경과 조선인민군 등에 의해 집단학살됐다.

임태훈 씨는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됐다. 이후 목포형무소를 거쳐 대구형무소로 이감,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희생됐다. 송두선 씨도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뒤 같은 해 7월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마찬가지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됐다.

경산 코발트광산에서도 1950년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이 이뤄졌다. 군경은 재소자들을 코발트 광산 수직 갱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3일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4·3희생자 유가족들이 헌화·분향하고 있다.

입구에 일렬로 세워놓고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원 확인을 통해 처음으로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 피해자 중 4·3 희생자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송태우 씨는 1948년 11월 한라산에서 피난생활하던 중 소식이 끊겼고, 제주공항에서 2007년 유해가 발굴됐다. 강인경씨는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후 경찰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됐고 60여 년이 흘러 제주 공항에서 유해가 발굴됐다.

이로써 도내외 발굴유해 426구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 등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은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의해 차디찬 땅 속에 묻혀야 했던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오늘의 신원 확인은 영령

들의 조카와 손자, 외손자까지 채혈에 참여한 덕분에 가능했다. 더 많은 유가족들이 채혈에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3기가 오는 26일 출범하면서 한국전쟁 시기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과 고문, 구금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찰서별 전담팀 운영 첩보수집... 위반시 엄정 대응

허위조작 정보 유포 단속·공정성 중대 침해 구속 수사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본청을 중심으로 제주동부·서부·서귀포 등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25명)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한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범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때

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둔 사전 인사나 선물 명목 금품 제공 등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설 연휴를 전후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262조의2)에 따라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도내 4개 기관 선정... 한 곳당 566만원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20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3일 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도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청소년과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자기권리 옹호와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센터는 도내 4개 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에 운영비 등 566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제주도 소재의 발달

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구기관, 대학, 민법·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다.

참여는 오는 20일까지 센터 누리집(www.broso.or.kr/jeju)에서 공모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bomil202@koddil.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센터 권익옹호팀 전화 070-5089-3718.

백금탁기자

독자 제보 750-2232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